

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사례 연구 -웹툰 <미생>의 드라마 <미생>으로의 재매개- A Case Study of Cross-Media Storytelling

: Remediation of Webtoon <Misaeng> to Drama Series <Misaeng>

김미라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Mira Kim(sohae81@swu.ac.kr)

요약

미디어 플랫폼이 증가하고 콘텐츠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성공한 콘텐츠를 다른 미디어 장르로 재매개하는 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웹툰이 원천 콘텐츠(source genre)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웹툰 <미생>이 TV드라마로 재매개 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서사가 확장되고 개조되었는지 분석하고, 이러한 변형을 불러온 미디어의 특성과 수용자와의 관련성을 논의하였다. 분석결과 상대적으로 특정 대상층을 목표로 하는 웹툰 <미생>이 바둑의 기보를 바탕으로 종합상사 비정규직 계약사원을 중심으로 직장인의 삶과 애환을 담담하게 그려냈다면, 보다 폭넓은 시청자를 확보해야 하는 TV드라마에서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애환', '직장내 성차별과 성희롱', '워킹맘의 애환' '신입 동기들간의 로맨스' 등 대중적 서사를 강화한 '확장' 전략을 사용하였다. 또 극적 재미를 위해 명확히 선악이 구분되는 인물 구도를 통한 갈등의 고조, 휴머니즘과 희극성의 강화를 드라마의 스토리텔링 전략으로 사용하였다.

■ 중심어 : | 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 재매개 | 웹툰 | 서사분석 |

Abstract

With the growth of media platforms and fierce competition in the media market, there have been focus on cross media storytelling, a remediation of content already proven successful to another type of medium. In particular, webtoons have emerged as being successful source media, and this study analyzes how the webtoon <Misaeng>'s narrative is expanded and transformed in the remediation process into TV drama. The results showed that, the webtoon <Misaeng>, which was targeted at a relatively more specific audience, objectively described stories of the life and hardships of an office worker through a contractual employee at a trading company navigating work life based on strategies of Baduk; while the TV drama version, which aims to appeal to a broader audience, strengthened popular narratives with topics of social issues such as 'hardships of the non-permanent employee', 'sexual discrimination and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difficulties of a working mom', and 'romance between new colleagues'. In addition, in order to create dramatic enjoyment, the drama's storytelling strategy incorporated conflicts by creating confrontational relationships among good and evil characters, and added humanism and comedic effect.

■ keyword : | Cross-media Storytelling | Remediation | Webtoon | Narrative Analysis |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연구년 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접수일자 : 2015년 06월 16일

심사완료일 : 2015년 07월 18일

수정일자 : 2015년 07월 13일

교신저자 : 김미라, e-mail : sohae81@swu.ac.kr

I. 서론

미디어 콘텐츠 플랫폼과 유통채널이 다변화되고, 이로 인한 경쟁의 심화로 콘텐츠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성공한 원천 콘텐츠(source genre)를 다른 미디어 장르로 재매개(remediation)하는 ‘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미디어 콘텐츠가 경험재인 만큼 성공한 원작을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시장에서의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원작에 충성도를 가지고 있는 수용자를 확보하여 일정한 흥행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1][2].

이러한 재매개를 통한 이중 장르로의 스토리 이동은 과거엔 소설 등 문학작품을 원천으로 한 영화, 드라마 등으로의 전환이 주를 이루다, 이현세 원작의 <공포의 외인구단>이 이장호 감독의 영화 <이장호의 외인구단>(1986)으로 만들어져 큰 호응을 얻자 1990년대부터는 만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들이 속속 제작되었다. 그러다 최근엔 웹툰(webtoon)이 원천콘텐츠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2012년 한 해에만 무려 36편의 웹툰 스토리가 다른 미디어 장르로 재매개되었으며, 그 수치는 그 해 재매개된 미디어 편수의 절반(49.3%)에 육박하는 수준이다[3].

이는 웹툰이 만화와 마찬가지로 미디어 스토리텔링에 필요한 탄탄한 서사와 캐릭터, 이미지 요소 등을 갖추고 있어 영화, 드라마 등 다른 영상 장르로의 전환이 용이할 뿐 아니라 독특한 소재와 내용으로 새로운 이야기 거리를 찾는 제작자들에게 스토리의 보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6년 강풀의 <아파트>와, <다세포소녀>가 영화화되면서 시작된 웹툰의 영화로의 매체전환은 2010년 관객수 7백만 명을 동원한 영화<이끼>의 성공으로 더욱 활발해지기 시작했다[4]. 이밖에도 노년의 사랑을 그린 강풀의 웹툰 <그대를 사랑합니다>(2007) 역시 연극과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미디어 장르로 전환돼 큰 인기를 끌면서 웹툰의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한 몫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웹툰의 원천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사례가 있었다.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만화속 세상’에 연재돼 ‘국민 웹툰’이

라 불리며 인기를 끌었던 윤태호 원작의 <미생(未生): 아직 살아있지 못한 자>가 이듬해 tvN의 20부작 드라마 <미생>(극본 정윤정, 연출 김원석)으로 전환, ‘미생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평생 바둑밖에 모르고 살았던 주인공 장그래가 프로 입단에 실패한 후 종합상사의 계약직 사원으로 고군분투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 <미생>은 평범한 직장인들과 비정규직의 애환을 다뤄 많은 호평을 받았으며, 케이블채널로서는 이례적으로 최고 시청률 8.2%(닐슨코리아 제공)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비정규직법이 정치권과 언론에서 공공연히 ‘장그래법’으로 불릴 만큼 사회적 파장이 컸으며, 방송 이전 발간된 동명의 출판만화 역시 드라마의 흥행에 힘입어 이후 엄청난 판매부수를 올리고 있다.¹

이처럼 미디어를 넘나드는 ‘크로스 미디어 스토리텔링’이 성공을 거두면서 원천 콘텐츠가 미디어의 특성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변형되고 재매개 되는지에 대한 학문적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콘텐츠의 매체 전환이 모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디어의 특성과 수용환경에 맞게 전환되었을 때에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웹툰 <미생>이 TV드라마 <미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매개가 이루어졌는지를 서사분석을 통해 비교검토하고, 이를 각각의 미디어 특성과의 상호연관성 속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에 관한 학술적 논의를 확장함은 물론 재매개의 방식과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 의의도 작지 않다.

II. 문헌 연구

1. 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개념

하나의 미디어 장르가 미디어와 장르간 경계를 가로질러 다양한 미디어로 전환되는 현상에 대한 용어와 개

¹ 출판만화 <미생>은 2012년 9월 1권이 발간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10월 9권이 완간되었는데, 윤태호 작가는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방송이후 판매부수가 급격히 늘어 인세로만 20억원을 벌었다고 밝혔다.

념 정의는 다소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성공한 문학작품의 영화 미디어로의 전환이 주를 이루던 1980년대까지는 주로 ‘각색(adaptation)’이라는 전통적인 용어가 사용되었다. 그러다 1990년대 이후 디지털 미디어의 출현과 미디어 융합이 본격화되면서 미디어의 ‘재매개(remediation)’라는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볼터와 그루신(Bolter & Grusin, 1999/ 2006)은 재매개를 “하나의 미디어가 내용과 형식 차원에서 다른 미디어의 테크놀로지, 표현 양식, 사회적 관습 등을 답습, 개선(improve)하거나 개조(remedy)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5]. 이와 같은 재매개 개념의 도입은 “내러티브의 변형을 텍스트와 미디어의 상호작용성이라는 확장된 틀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진화적 관점에서 미디어의 등장과 공존을 바라보는 것으로 전통미디어와 디지털미디어를 포괄하는 논의를 가능케 하여 연구의 지평을 확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6].

이러한 재매개가 다중 플랫폼으로 진행되면서 최근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개념이 매체전환 스토리텔링이다. 이재현(2006)은 콘텐츠나 미디어 이용자가 여러 플랫폼을 넘나드는 현상을 ‘멀티플랫폼(multiplatforming)’으로 개념화하고, 이를 다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과 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으로 구분하였다[7]. 그는 동일한 콘텐츠가 여러 미디어 플랫폼에 유통되는 OSMU를 위한 장르 전환을 크로스미디어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각기 다른 ‘스토리’가 유통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보았다. 신동희·김희경(2010) 역시 같은 맥락에서 OSMU는 성공한 원작 콘텐츠를 기반으로 그것의 특성에 맞게 순차적으로 다른 미디어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트랜스미디어 콘텐츠는 단계적이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각각의 콘텐츠가 개별적 세계를 표현하면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통합적 세계가 창조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았다[8]. 그러나 이들의 정의는 산업적 차원에서의 창구전략을 의미하는 OSMU 현상을 미디어 특성에 따른 스토리 전환과 서사적 변형에 주목하는 ‘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링’과 명확한 구분 없이 혼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한계가 있다.

서성은(2014)은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매체 전환에 따른 스토리텔링의 변형 양상을 두 가지로 구

분,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양자가 모두 멀티플랫폼 스토리텔링(multi-platform storytelling)이라는 공통분모를 갖지만 ‘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성공한 원작을 각색을 통해 다매체로 확장시키는 방식이고,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매체별 스토리의 반복을 회피하되, 각 스토리 갈래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적극적인 매체 횡단을 통해 하나의 스토리세계를 향유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자가 성공한 원작을 매체 특성에 맞게 ‘다시 쓰기’하는 방식이라면 후자는 새로운 스토리를 ‘덧붙여 쓰고’ ‘새로 쓰기’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9].

따라서 성공한 원작인 웹툰 <미생: 아직 살아있지 못한 자>가 이종 미디어인 TV드라마 <미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변형과 재매개 방식을 살펴보는 본 연구에서는 이를 ‘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사례로 규정하였다.

2. 만화와 웹툰의 재매개에 관한 선행 연구

원천 콘텐츠의 각색을 통한 서사 변형에 대한 연구는 소설의 영화, 드라마 전환부터 있어 왔다. 하지만 여기서는 본 연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만화와 웹툰의 영상 미디어로의 재매개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성공한 만화 원작의 이종 미디어로의 재매개 과정을 연구한 김은영·김훈순(2012)은 원작 만화 <조선여형사 다모>가 정형화된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 추리 서사인데 반해 폭넓은 수용자층을 목표로 하는 TV드라마와 영화는 공통적으로 입체적 인물과 복잡한 관계설정, 로맨스가 강화된 다중플롯 구성, 희극성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호흡이 긴 TV드라마의 경우에 이야기가 확장되고, 짧은 시간 안에 서사가 종결돼야 하는 영화에서는 이야기가 압축되었다고 밝혔다[10]. 같은 맥락에서 만화 <풀하우스>와 <궁>을 중심으로 만화원작의 TV드라마 재매개 방식을 연구한 남승연(2007) 역시 만화는 인물과 이야기 구조가 정형화되어 있고 갈등구조가 단순하다며, 드라마 전환을 위해서는 현실성을 획득한 인물을 설정하고, 주요 갈등과 부수적 갈등이 적절히 얽히는 복잡한 갈등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11]. 한편 허영만

원작의 만화 <식객>이 영화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스토리텔링의 특징을 분석한 연구도 이루어졌는데, 영화에서는 에피소드가 대폭 압축되고, 선악의 이항대립구조로 캐릭터간의 갈등 구조가 강화되고 신과성과 코믹성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12].

만화에 이어 원천콘텐츠로서 웹툰의 가치가 부상하면서 최근 들어 웹툰의 재매개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재매개가 드라마보다는 영화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뤄지다 보니 실증적인 사례연구 또한 영화에 편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연구들은 영화로의 재매개 과정에서 일어나는 서사구조의 변형이나 답습이 영화의 성패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논의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웹툰 <이끼>의 영화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연구에서는 웹툰이 미스터리한 사건이 계속되다 거의 결말에 가서야 모든 인물과 사건의 개연성이 밝혀지는 추리서사를 유지하는 데 반해 영화에서는 프롤로그를 통해 좀 더 친절하게 관객이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 구조로 변형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캐릭터 역시 영화라는 매체 특성에 맞게 선악의 대비가 극명한 형태로 단선화 되는 차별성을 보였는데, 이러한 스토리텔링 전략이 영화 <이끼> 성공요인이라고 평가했다[13]. 채희상(2014) 또한 웹툰 <은밀하게 위대하게>의 출판만화, 영화로의 매체전환 과정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는 영화 <이끼>와 다르게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영화의 매체성을 고려하지 않고 세부 플롯 사건, 캐릭터 설명 등을 생략함으로써 캐릭터에 대한 공감감이 약화된 것이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았다[14]. 이수진(2007)도 웹툰을 재매개한 영화 <다세포 소녀>의 실패요인 가운데 하나로 영화의 매체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코믹한 일화들이 단순하게 나열되는 웹툰의 에피소드 플롯을 그대로 영화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15].

이처럼 웹툰의 영화로의 재매개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재매개 작품의 성패가 미디어의 고유한 매체성을 수렴하는데 달려있다는 논의들이 확장되고 있는 반면 웹툰에서 드라마로의 재매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이경숙(2012)이 강풀 원작의 웹툰 <그대를 사랑합니다>(2007)가 TV드라마와 영화

로 재매개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서사적 특징을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 16부작인 텔레비전 드라마가 원작과 달리 배경, 인물, 갈등을 확대했다면, 영화는 웹툰의 서사 전개과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인물과 배경을 설정하되 만화적 요소를 동원하고 배경음악과 조명을 통해 노년의 서정적 사랑과 우정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16]. 그러나 이 연구는 재매개 특성에 대한 논의보다는 각각의 미디어에서 표출되는 노년의 재현관습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웹툰이나 TV드라마의 매체성과의 연관 속에서 웹툰이 TV드라마로 재매개되는 과정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3. 웹툰과 TV드라마의 매체성과 서사적 특징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성공한 원천 콘텐츠가 미디어를 가로질러 전환되는 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과정에서는 미디어의 매체적 특성과 수용환경에 맞게 서사 구조가 일정부분 변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재매개의 방식이 매체 특성에 맞게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후속 콘텐츠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디어의 재매개에 따른 스토리텔링 전략을 논의하는데 있어서는 해당 매체의 특성과 수용환경에 관한 고찰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웹툰과 드라마의 매체성과 이에 따른 서사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웹툰은 웹에 게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창작물이지만 자유로운 서사 시간 및 공간 설정, 도상 이미지, 소리의 이미지화(말풍선, 지문, 의성어, 의태어, 문장부호) 등 기존 출판만화와 많은 부분 서사양식을 공유한다[17]. 웹툰만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한다면 칸과 경계가 모호해지고 세로스크롤 연출방식을 사용, 독자가 읽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좀 더 스토리의 호흡을 따라가며 몰입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또한 출판 만화가 불규칙적으로 간행되는 것에 반해 포털의 웹툰은 주기적으로 게시되면서 수용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특히 웹툰 초기의 짤막한 에세이툰, 일상툰들과 달리 본 연구가 주목하는 <미생>과 같이 6개월 이상 연재되는 장편 극화들은 표현방식은 달라졌지만 기승전결의

구조를 갖는 기존 장편 출판만화와 서사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앞서 남승연(2007)이 지적했듯이 만화는 정형화된 인물과 플롯 구조, 갈등구조의 단순화를 특징으로 한다. 이미지 중심의 웹툰 역시 다수의 인물과 다양한 사건이 전개되기에는 부적절하고, 독자들의 몰입을 위해 단일한 플롯에 대한 반복적 변주를 통한 스토리텔링이 적합하며, 인물보다는 사건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된다고 알려져 있다[18].

반면 TV드라마의 경우 매체적 특성과 수용환경에 따라 웹툰과는 다른 서사 구조를 요구한다. 선행연구들에서 보았듯이 2시간 남짓한 시간적 제약이 있는 영화의 경우 재매개 과정에서 에피소드와 인물의 생략을 통한 서사와 갈등의 단선화가 이루어진다면, 드라마의 경우 에피소드와 인물이 추가, 확장되고 복합적인 플롯으로 변화되며 인물관계도 복잡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웹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폭넓은 수용층을 확보해야 하는 TV드라마의 경우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서사와 인물을 설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코즐로프(Kozloff, 1992)는 이러한 방송드라마의 전형적 특성 때문에 서사적 긴장감이 결여될 수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드라마는 수용자의 흥미를 통합체적 축(syntagmatic axis), 즉 사건의 흐름에서 계열체적인 축(paradigmatic axis), 인물과 인물관계 등의 변화로 이동시키는 전략을 구사한다고 주장했다[19].

또 하나 드라마의 서사가 웹툰이나 영화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TV드라마의 편성 특성으로 인한 수용 환경과 관련된다. 분석대상인 드라마 <미생>과 같은 미니시리즈물은 16~20부 안팎의 긴 호흡을 가지고 있으며, 매주 이틀에 걸쳐 2회가 연달아 편성되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시청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몰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매회 서사를 종결시키지 않고 확장하며 갈등을 고조시키고, 극적인 에피소드의 삽입을 통해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 연구는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로의 재매개 과정에 대한 학술적인 분석과 논의가 미진한 상황에서 이러한 매체적 속성과 연관시켜 웹툰 <미생>이 TV드라마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서사 구조가 어떠한 방식으로 개조되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또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드라마 <미생>이 성공할 수 있었던 스토리텔링 전략과 수용자와의 접점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향후 웹툰이 드라마로 재매개되는 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원컨텐츠로서 가치가 급부상하고 있는 웹툰의 TV드라마로의 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특징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윤태호 원작의 웹툰 <미생>: 아직 살아있지 못한 자'와 tvN에서 방영된 드라마 <미생>의 전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웹툰 미생은 2012년 1월 17일 예고편을 시작으로 2013년 7월 19일까지 1년 7개월에 걸쳐 총 145수²가 포털사이트 다음의 '만화 속 세상'에 연재되었다. 그리고 드라마 <미생>(극본 정윤정, 연출 김원석)은 2014년 10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20부작으로 케이블채널 tvN에서 매주 금, 토요일 저녁 방영되었다.

웹툰 <미생>이 드라마로 제작되기 전에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웹드라마 형식의 '미생 프리퀀'이 2013년 5월 공개되기도 했으나, 이는 연속적 서사를 가진 것이 아니라 주요 등장인물 6명을 소개하는 일종의 웨비소드³ 형식으로 제작돼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웹툰 <미생>은 포털사이트에 유료 접속하여, 드라마 <미생>은 홈페이지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2. 분석 방법

성공한 원작의 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서사의 변형과 개조(remedy)방식을 분석하는 데는 앞의 선행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채트만(Chatman, 1978/1990)의 서사구조 분석틀[20]이 유용

2 프로 입단에 실패한 장그레가 주인공인 웹툰 <미생>은 바둑 대국에서의 기보 해설을 주인공의 심리나 상황묘사에 사용하고 있는 만큼 매 회차를 1수, 2수로 표현하였으며, TV드라마 또한 이를 차용하여 1국, 2국의 단위를 사용했다.

3 웹(web)과 에피소드(episode)의 합성어로 웹이나 모바일에서 다운로드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되는 5~10분 길이의 동영상을 의미한다.

하다. 그에 따르면 모든 텍스트의 서사(narrative)는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의 이야기(story)와,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되는가’ 하는 서술방식을 의미하는 담화(discourse) 차원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서사분석은 사건과 인물, 배경 등에 대한 계열체적 분석과, 이들을 연결해 의미를 만들어 가는 시퀀스 분석, 즉 전체 플롯 구성 등 통합체적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서사분석은 인물과 사건 중심의 플롯으로 구성된 전형적 서사물인 웹툰과 TV드라마를 통합체적 측면과 계열체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는데 무엇보다 유용한 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웹툰과 TV드라마를 대상으로 통합체적 측면에서 전체 플롯과 플롯 구성, 이야기-시간 구성에 어떤 변형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계열체적 차원에서 사건과 인물의 설정, 인물간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스토리텔링의 전략을 매체적 특성과의 연관 속에서 논의할 것이다.

IV. 연구결과

1. 이야기 구조: 플롯 구조의 변화

1.1 복합적 플롯을 통한 서사의 확장

플롯은 사건들에 대한 배열이다. 이야기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 중에서 특정한 것을 강조하며, 독자나 관객으로 하여금 특정 내용을 해석하도록 유도하기도 하고, 사건을 배열하는 과정에서 세밀하게 다루거나 생략하기도 한다[21]. 따라서 하나의 텍스트가 다른 이종 장르의 텍스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플롯구조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어떠한 사건들이 추가되고 강조되며, 어떠한 에피소드들이 생략되거나 축소되었는지를 비교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분석 결과, 웹툰 미생은 프로 입단에 실패하고 대기업 종합상사 계약직 직원이 돼 고군분투하는 장그래와 그가 배속된 영업3팀의 팀장인 오차장과 동료들을 통해서 평범한 직장인들의 일상과 애환, 장그래의 성장과정을 따라 가는 비교적 단순한 플롯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TV드라마로 전환되면서 단선적인 플롯 전

개가 보다 복합적인 플롯으로 변형되며 서사를 확장한다. 웹툰에서의 계약직 직원 장그래의 성장과정은 물론, 대기업의 치열한 사내 정치와 굴절된 기업문화에 맞서는 영업3팀 오차장의 이야기가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플롯으로 등장한다. 또한 여자 주인공이나 다름없는 장그래의 입사동기인 안영이에 대한 부서장과 남자 선배들의 성차별과 성희롱, 이에 적용해 가는 안영이의 이야기, 워킹맘으로서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 전전긍긍하며 이를 극복해 나가는 선차장의 이야기가 부수적인 플롯으로 등장한다. 또한 웹툰에서는 입사 동기인 장그래와 안영이, 안영이와 장백기의 로맨스 서사가 등장하지 않으나, TV 드라마에서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장그래와 안영이, 안영이와 장백기 사이에 묘한 감정과 긴장감, 장그래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유치원 교사 등 로맨스 서사가 또 하나의 주요한 플롯으로 전개되었다.

표 1. 웹툰→드라마 재매개 과정에 강화된 서사

서사	추가된 에피소드
고졸 계약직의 애환	- 동기들의 따돌림으로 냉동차에 갇힌 그래 - 회사가 설 선물로 정규직에게 햄세트를 주지만 계약직이라 식용유를 받고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는 그래
직장내 성차별/성희롱	- 임신중 쓰러진 여직원을 향한 부서장과 동료들의 성차별적 발언 - 능력있고 당당한 안영이에 대한 마부장과 팀 선배들의 성차별적 심부름과 폭언 - 본사에서 나온 여직원을 향한 남자 사원들의 집단적 성희롱 등
워킹맘의 애환	- 능력이 뛰어나 남자 동기들보다 먼저 승진한 선차장이 유치원에 다니는 딸의 육아와 픽업문제로 남편과 갈등 - 가사와 업무 등에 시달려 쓰러지지만 퇴직을 기대하는 남편과 남자 상사들
입사동기간의 로맨스	- 장그래와 안영이의 묘한 감정과 사건들 - 안영이를 좋아해 영이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나서 도와주고 호의를 보이는 장백기와의 러브 라인 - 선차장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 교사의 장그래에 대한 적극적 구애

이 과정에서 웹툰에서 그려졌던 주인공 장그래의 첫 월급날이나, 업무에 적응하기 위해 주말에 영어 학원이나 OA 실무과정에 다니는 등의 자기 개발 에피소드, 직장인들의 환절기 감기 예방법이나 춘곤증에 대처하는 방식 등의 일상적이고 소소한 에피소드는 생략된다. 대신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드라마 방영 당시의 사회적 이슈들이 반영된 보다 보편적이고 드라마틱한 에피

소드들을 추가, 폭넓은 수용자층을 대상으로 긴 호흡을 유지해야 하는 TV드라마에 맞게 서사와 플롯이 대폭 확장되어, 영화매체로의 재매개 과정에서 드러났던 ‘압축’방식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1.2 선형적 플롯에서 시간 변형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는 사건의 발생 흐름에 따라 시간이 선형적으로 구성되지만 미디어 텍스트는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과거를 회상하는 플래시백(flashback)을 활용하는 등 의도적으로 시간을 왜곡해 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웹툰 <미생>이 TV드라마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이런 플롯 구조의 변화가 나타났다. 웹툰 <미생>은 프로 입단에 실패한 장그래가 지인의 청탁으로 고졸학력에도 불구하고 원 인터내셔널이라는 대기업에 인턴 사원으로 취직하는 시점과 배경 설명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런데 드라마 <미생>은 첫 회 프롤로그에 마지막 회 장면인 회사를 나가 상사 맨으로 성공한 장그래가 요르단에서 샘플을 들고 도주한 범인을 추격하는 역동적인 장면을 먼저 보여준다. 이는 드라마 제작자들이 초반부터 스펙터클한 장면을 통해 극적 긴장감과 흥미를 유발해 시청자를 유인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수미상관식의 플롯 구성은 시청률에 민감한 TV드라마의 서사전략으로 만화 <조선여형사 다모>가 TV드라마로 재매개되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바 있다[22].

또한 웹툰 <미생>에서도 회상을 통한 시간변형의 연쇄가 시도되기는 하지만 특히 TV드라마로 전환되면서 이러한 시도는 훨씬 자주 적극적으로 나타난다. 활자와 그림을 표현요소로 하는 웹툰 <미생>이 바둑의 기보와 문자언어를 통한 내레이션을 사용하여 인물의 내면과 과거 사건과의 개연성에 대한 설명력을 높여 갔다면, TV드라마는 영상매체의 표현양식인 플래시백(flashback)과 독백을 통해 이를 대체하는 특성을 보였다. 또한 주인공인 장그래 이외도 여자 주인공 안영이와 입사 동기인 장백기의 어린 시절 역시 과거 회상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인물의 성격과 사건과의 개연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2. 인물과 인물관계의 변화

2.1 대중적 인물의 설정과 희극성의 강화

웹툰 <미생>이 TV드라마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스토리텔링 양식 중 하나는 서사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인물들이 보다 휴머니즘이 강조된 대중적 인물로 설정되었다는 것이다. 우선 주인공인 장그래 못지않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업3팀의 오차장은 웹툰에서는 직장내 승진이나 정치에는 관심 없이 오로지 자신의 일에 매진하는 원칙주의자로 그려진다. 그러나 TV 드라마 속의 오차장은 직장 내의 잘못된 관행에 맞서는 원칙주의자이면서도 계약직인 부하 직원 장그래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원치 않는 계약 건을 떠맡고, 동기인 선차장이 과로로 쓰러지자 주말에 신입사원들을 모아 선차장의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대신 만들어주는 등 따뜻하고 인간적 면모를 갖춘 대중적인 인물로 변형된다. 또한 웹툰에서는 늘 빨갛게 충혈된 눈을 하고 다니는 전형적인 대기업 중간간부의 모습이지만 TV드라마에서는 직장 후배들과 격의 없이 농담을 주고받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의 발을 고의로 걸어 넘어뜨리는 등 다소 엉뚱하고 코믹한 면모까지 갖춘 인물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인물 설정을 통해 극의 희극성이 강화되는데, 드라마 제8국에서는 바이어 술 접대를 앞두고 일부러 화장실에 들락거리기 위해 팀원인 김대리와 장그래를 데리고 옥상에 나란히 쪼그리고 앉아 햇볕에 놓아뒀던 상한 우유를 마시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러한 인물 설정의 변화는 장그래의 입사 동기로 여자 주인공이나 다름없는 안영이의 경우에도 극명하게 나타난다. 웹툰에서의 안영이는 아들을 선호하는 군인 아버지의 냉대로 인한 성장기의 상처로 짧은 머리에 중성적인 차림을 하고, 직장 부서장들과 남자 선배들의 성차별과 성희롱에도 실력과 업무능력 하나로 꿰뚫히게 맞서 나가는 기존의 젠더 규범을 벗어난 인물로 그려진다. 그러나 TV드라마 속의 안영이는 긴 머리에 여성성이 드러나는 외모를 가지고 있으며, 부당한 성차별과 성희롱에 정면으로 맞서기 보다는 자신의 성과를 남자 선배에게 양보하는 등 조직과 남성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현실과 타협하며 적응해 가는 보다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이렇게 변모된 안영이를 통해

첫 회에서는 인턴 사원인 안영이가 해외 바이어에게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여성들의 브래지어에 사용되는 라텍스폼을 직접 착용했다가 꺼내서 보여주는 웹툰에 없는 코믹한 에피소드를 추가, 희극성을 강화한다.

이는 모든 직장인들이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능력 있고 탈권위적이면서 인간적 면모와 위트까지 갖춘 오차장이라는 상사를 통해 판타지를 제공하고, 가부장제가 용인하는 젊고 매력적이면서 현실과도 타협할 줄 아는 직장여성 안영이를 통해 보다 폭넓은 시청자를 끌어들이려는 전형적인 TV매체의 스토리텔링 전략으로 볼 수 있다.

2.2 조연들의 역할 확대를 통한 갈등구도의 확장

또 하나 웹툰이 드라마로 재매개 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서사구조의 변화중 하나는 조연에 머물던 인물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선과 악의 이항대립적 구도를 통해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웹툰에서는 주인공인 장그래와 오차장, 오차장을 곤경에 빠뜨리는 상사, 입사동기인 안영이와 성차별적 언행을 일삼는 마부장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다른 입사동기인 장백기와 한석울, 그리고 이들을 괴롭히는 선배들과의 적대관계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TV 드라마에서는 최고의 스펙을 가진 입사동기 장백기와, 장그래와 달리 너살 좋고 현실 적응이 빠른 한석울의 역할과 이야기 또한 비중 있게 다뤄지며, [표 2]에서 보듯이 그들과 대치하는 선과 악의 이항대립적 인물 구도가 자연스럽게 설정되면서 서사가 확장된다. 이항대립적 인물 구도는 일반적으로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매체 전환시 극의 긴장감과 몰입을 위해 사용되는 공통적인 전략이다. 그러나 드라마 <미생>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조연들에 대한 명확한 성격 부여와 비중 확대는 한두 시간 안에 서사가 종결되는 영화와 달리 끊임없이 서사를 지연시켜야 하는 드라마의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표 2. 드라마 <미생>의 이항대립적 인물 구도

대립적 인물	갈등 내용
장그래 ↔ 박과장	- 영연3팀에 새로 발령받은 박과장은 회사내 문제 인물로 계약직인 장그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안마까지 시키지만 결국 장그래로 인해 부정이 탄로남.
오차장 ↔ 최전무 오차장 ↔ 마부장	- 최전무는 오차장의 상사로 자신의 입지를 위해 오차장을 곤경에 빠뜨리는 인물이며 원칙주의자인 오차장과 번번이 대립함. - 마부장은 오차장과 달리 부하들에게 폭언과 폭행, 성차별과 성희롱을 일삼는 인물로 이런 처신을 제지하는 오차장과 시종일관 대립함.
안영이 ↔ 아버지 안영이 ↔ 하대리	- 안영이는 어린 시절 자신이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냉대하고, 직장에 취직하자 번번이 돈을 요구하는 아버지와 대립관계임. - 안영이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하대리 등 남자 선배들은 안영이가 여자라는 이유로 온갖 심부름을 시키고 성차별을 일삼음.
장백기 ↔ 강대리	- 뛰어난 스펙에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장백기를 못마땅해 하는 같은 팀 강대리는 장백기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허드렛일을 시켜 갈등을 빚음.
한석울 ↔ 성대리	- 성대리는 일은 하지 않고 신입사원인 한석울의 성과를 가로채며 괴롭히고, 이에 굴하지 않는 한석울은 성대리가 거래처로부터 항응을 받고 관계자와 불륜관계라는 것을 밝혀내 갈등을 빚음.

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미디어 플랫폼의 증대와 콘텐츠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서사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는 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즉 성공한 원천 콘텐츠가 다른 미디어 장르로 이동할 때 어떤 방식으로 재매개가 이루어지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최근 가장 성공한 재매개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웹툰 <미생: 아직 살아있지 못한 자>가 드라마 <미생>으로 재매개 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와 플롯, 인물 등 서사구조가 변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미디어의 특성과 결부해 논의하였다.

분석 결과, 웹툰은 바둑밖에 모르고 살다 프로 입단에 실패한 후 대기업 계약직 사원이 된 장그래와 그의 상사인 오차장을 통해 계약직 사원의 성장기와 평범한 직장인들의 애환을 비교적 단순하고 선형적인 플롯을 통해 담담하게 그려냈다. 반면 TV드라마에서는 방영 당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성차별과 성희롱의 문제, 일과 가정을 병립해야 하는 워킹맘의 애환,

그리고 입사 동기들간의 미묘한 로맨스 등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서사가 강화된 복합적 플롯을 통해 서사의 '확장' 전략을 구가하였다.

인물 설정과 구도에 있어서도 웹툰이 장그래와 오차장을 전면에 내세워 서사를 이끌어어나가며 다른 인물들을 주변화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비해 드라마에서는 조연들의 역할 확대와 명확한 성격 부여의 스토리텔링 전략을 통해 역시 서사를 확장하였다. 이는 이미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졌듯이 상영시간에 제한이 있는 영화의 경우 불가피하게 서사와 인물을 '압축'하는 전략을 사용하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호흡이 긴 드라마의 경우 서사의 '확장' 전략이 사용된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결과이다.

한편 드라마 <미생>이 성공한 재매개물이 될 수 있었던 데는 TV드라마라는 장르적 속성에 따른 소구점을 분명하게 읽어낸 데 있다. 웹툰의 이용인구가 늘어나고 대중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TV드라마에 비해서 웹툰은 상대적으로 웹이나 모바일을 통해 영상을 소비하는 10~30대의 특정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며, 비교적 소재나 내용에 대한 제약도 많지 않다. 반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TV드라마는 그 어떤 미디어 장르보다도 계급, 성별, 나이의 경계를 넘어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경험과 가치를 제시하는 경향이 있고[23], 이러한 특성을 수렴하는 서사전략을 구현했을 때 수용자의 폭을 넓힘으로써 높은 시청률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드라마 <미생>은 바로 대중성과 보편성을 추구하고 사회적 변화에 민감한 TV드라마의 이런 속성을 빠르게 수렴하여 비정규직 문제, 대기업의 사내 정치, 직장 내 성차별과 성희롱 문제, 그리고 동기간 로맨스 등 대중적 서사를 강화하고, 대중적인 인물 설정과 희극성의 강화를 통해 웹툰의 흥행에 못지않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⁵

4 웹툰 <미생>이 1년 7개월간 연재된 총 145수로 구성된 장편극화이지만 독자들의 회당 수용시간은 5분 남짓으로 짧은 반면, 드라마 <미생>은 회당 평균 방송시간이 60분이 넘는 20부작으로 훨씬 호흡이 긴 서사물이라고 할 수 있다.

5 실제로 드라마의 흥행에 힘입어 다음카카오에서 유료로 제공되고 있는 웹툰 <미생>은 약 11억 뷰의 누적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고, 드라마 방영 이후 출판만화도 220만 부의 누적 판매기록을 올리고 있다 [24].

그렇다면 이러한 드라마 <미생>의 재매개 방식이 궁극적으로 수용자들과 만나는 지점에서는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살펴보자. 사실 웹툰 <미생>에 비해 드라마 <미생>은 사실적이라기보다는 판타지적 요소가 많은 지적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평범한 셀러리맨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누구나 한번쯤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보편적인 서사의 강화, 주변에 있음직한 다양한 인물의 설정을 통해서 드라마 <미생>은 수용자의 공감과 감정이입, 동일시를 통한 '정서적 리얼리즘(emotional realism)'을 담보할 수 있었다. 실제로 드라마 시청자 게시판에는 드라마 속 이야기와 인물에 공감하는 글들이 쏟아졌다[25].

"미생을 통해 보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 지금 내가 어떻게 직장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모습에 큰 동질감을 느끼고, 아무도 몰라주던 직장생활의 어려움과 이야기들은 바로 내 이야기가 되어 이전 미생에서 연기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나와 같이 느껴진다고나 할까요."(게시물 1438)

이러한 정서적 리얼리즘은 드라마속의 사건이나 인물이 실제 현실과 다르더라도 수용자들이 그것을 사실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럴 듯한 개연성과 진솔함이 느껴질 때 발생하고, 수용자는 이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몰입하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남성 중심의 직장인 드라마들과 달리 드라마 <미생>은 재매개 과정에서 안영이로 상징되는 직장 내 성차별과 성희롱문제, 워킹맘인 선차장의 애환과 고뇌를 보여주는 에피소드를 추가하고 비중을 높여 많은 여성시청자들의 공감을 얻고, 그들을 충성도 높은 시청자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

"미생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옛날 생각 나서요. 지금은 여성 차별 없는 직장 다니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옛날 생각하면 마음 아프네요."(게시물 1152)

"선 차장이 업무통화를 하면서 어린이집에 바쁘게 아이를 데려다주고 그냥 가려는 사이 다녀오시라고 인사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소미를 보고 여자로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워킹맘의 어려움, 직장에서의 여성인 권유린을 세밀하게 묘사해주셔서 고마운 느낌..."(게시물 324)

본 연구는 웹툰이 드라마로 재매개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서사구조가 변형되는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각 미디어의 매체성과의 연관 속에서 논의하였다. 또한 부분적이거나 재매개의 결과가 수용자들과 만나는 지점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으나, 본격적인 수용연구까지는 나아가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그동안 서사 구조의 변화에만 집중해 왔던 미디어 재매개 연구가 향후에는 수용연구와 접목하는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유의 창작물이든 재매개물이든 궁극적으로 미디어 생산물은 그 성패가 수용자와 만나는 접점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 [1] G. Jowett and J. Linton, *Movies as mass communication*, Newbury Park, Calif.: Sage, 1989, 김훈순 역, *영화커뮤니케이션*, 서울: 나남, 1994.
- [2] 조은희, 임정수, “한국 영화산업의 시대별 특수성에 따른 원작 사용에 관한 연구”, *언론과 사회*, 제17권, 제3호, pp.51-77, 2009.
- [3] 이문행, “국내 미디어 콘텐츠의 장르 간 스토리 이동에 관한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제15권, 제1호, pp.61-81, 2014.
- [4] 채희상, “웹툰의 매체전환 과정에 관한 연구: <은밀하게 위대하게>를 중심으로”, *애니메이션 연구*, 제10권, 제2호, pp.194-210, 2014.
- [5] J. Bolter and R. Grusin, *Remediation: Understanding new media*, Massachusetts: MIT Press, 1999, 이재현 역, *재매개: 뉴미디어의 계보학*,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p.52, 2006.
- [6] 김은영, 김훈순, “미디어 텍스트의 재매개 연구: 만화 <조선여형사 다모>의 재매개 TV드라마와 영화 사례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12권, 제2호, pp.240-273, 2012.
- [7] 이재현, “모바일 미디어와 모바일 콘텐츠: 멀티플랫폼 이론의 구성과 적용”, *방송문화연구*, 제18권, 제2호, pp.285-317, 2006.
- [8] 신동희, 김희경, “트랜스미디어 콘텐츠 연구: 스토리텔링과 개념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10호, pp.180-189, 2010.
- [9] 서성은, *매체전환 스토리텔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10] 김은영, 김훈순, 앞의 글, p.240.
- [11] 남승연, “만화원작 TV드라마 연구: <플하우스>, <궁>을 중심으로”, *드라마연구*, 제26호, pp.219-247, 2007.
- [12] 박승현, 이윤진, “만화의 영화로의 전환: <식객>의 사례연구”, *만화애니메이션연구*, 제17호, pp.97-115, 2009.
- [13] 한창완, 홍난지, “웹툰의 영화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연구: 웹툰 <이끼>의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2호, pp.186-194, 2011.
- [14] 채희상, 앞의 글, p.194.
- [15] 이수진, “만화에서 영화로의 전환 adaptation”, *프랑스학연구*, 제42집, pp.455-480, 2007.
- [16] 이경숙, “<그대를 사랑합니다>의 서사적 재매개와 노년의 재현 관습”, *드라마연구*, 제38호, pp.141-168, 2012.
- [17] 채희상, 앞의 글, p.200.
- [18] 이상민, “웹 만화의 매체적 특성과 스토리텔링에 관한 연구”, *한국학연구*, 제30호, pp.237-262, 2009.
- [19] S. R. Kozloff, “Narrative Theory and Television,” In Allen, A. C.(Ed.), *Channels of Discourse, Reassembled: Television and Contemporary Criticism*,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pp.67-100, 1992.
- [20] S. Chatman, *Story and discourse: 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 1978, 김경수 역, *영화와 소설의 서사 구조: 이야기와 담화*, 서울: 민음사, 1990.
- [21] 주창윤, *영상 이미지의 구조*, 서울: 나남, 2015.
- [22] 김은영, 김훈순, 앞의 글, p.263.
- [23] D. Thorburn, “Television as an aesthetic medium,” In J. W. Carey(Ed.), *Media Myths, and*

Narrative: Television and Press, London:Sage,
pp.48-66, 1988.

[24] <http://www.kocca.kr/cop/bbs/View/B0000147/1825421.do?menuNo=201825>

[25] <http://programinterest.me/tvn/misaeng/6/Board/List>

저 자 소 개

김 미 라(Mira Kim)

정회원



- 1984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문학사)
- 200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문학석사)
- 200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언론학박사)

▪ 현재 :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관심분야> : 디지털 미디어 수용자, 방송 콘텐츠